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1 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지난 수십년, 사회의 발전은 포스트식민주의 및 포스트구조주의로부터 문화 및 사회와 같은 일련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19 세기부터 급속하게 시작된 글로벌화추세에서 이런 변혁들은 지식이 사회, 정치 및 문화면에서의 작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유럽 계몽운동에서 사람들은 현대적인 개념과 가설을 발전시켜 왔기에 우리의 지식학과 분류학이 현대와 전통지식, 외래와 본토지식의 대립면에 서게 하였습니다. 비록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이원대립”의 문제에 전념하였지만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자들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다른 정치, 사회 및 문화 요소들이 어떻게 지식의 산생과 전파에 참여해 왔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동서방 나라 사이의 지식 이전과정에서 완전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의 발견과정과 같이 지식은 정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또는 제국주의 환경하의 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 처럼, 지식은 지속적으로 타협하고 사회층면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수용되며 심지어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의 수용과 배척은 수용자의 사회 및 문화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타당한 방법으로 지식형성의 패턴을 새롭게 이해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즉 지식의 전파자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의 전환과 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참회자 여러분도 그 중의 일원이십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 민족면에서 과학자, 전문가들이 편찬한 풍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2019 년 회의주제를 지식 전파의 매체에서 전개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국내, 국제는 물론이고 일부 참가자, 기구와 지식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등은 모두 회의의 토론범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유럽중심주의 지식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공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 또는 종족이 탄생하는 모범이 아니며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한 학과가 단지 “서양” 또는 “유럽”과학의 비교대상이 되는것에 불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초월하여 지식의 동태적인 형성모델 및 전파방식을 더 잘 이해하려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예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의 인문학과는 “지식, 시간성, 문화비교”를 주제로 하는 학제적 연구에 전념해왔고 본 학교 국제인문연구연맹 프로그램—“운명, 자유 및 예측”은 2019 년 동아시아 문화교섭학회를 응원해 줄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차대회 주제

동아시아 지식의 변천 및 초월——과학기술사의 글로벌네트워크

패널

1. 지식환류의 글로벌 역사
2. 과학기술의 다국적 개념사
3. 포스트 조지프 니덤시대의 지식 인식론
4. 지식생산의 합리성
5. 정치규칙중의 절대진리 및 절대지식
6. 19-20 세기 동아시아 과학연구기구 및 조직의 역할
7. 여행자 및 여행의 지식
8. 제국/민족/지역의 지식교섭
9. 문학, 역사 및 철학의 번역과 지식 이전
10. 동아시아 지식사의 각종 관련 연구

회 장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독일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Kollegienhaus, Universitaetsstrasse 15, 91054 Erlangen, Germany

회의일정

도 착 2019년 5월 10일 (금)
연차대회 2019년 5월 11-12일 (토·일)
해 산 2019년 5월 13일 (월)

신청마감 및 심사결과 발표일정

본 대회는 기조강연, 개별 패널세션, 개인발표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신청서 제출시점 박사과정 재학중) 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상기 패널세션 주제를 참고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세션은 2시간씩 배분됩니다 (발표자 4-5명, 사회자 1명, 지정토론자 1-2명으로 진행되고 발표자가 사회자 또는 지정토론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및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인 **참가신청서와 발표요지(약 400자 및 영문요지 300단어 정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8년 12월 21일(금)이며**, 대회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1월 하순 공식적인 초대장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대회 특별초대대표 외의 참가자는 왕복 교통비 및 숙박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가비는 일반회원 100€, 대학원생 70€이며** 현지 도착후 현지화폐(유로)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및 외화는 받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간담회, 회의기간의 오찬 및 논문집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발표신청 접수처: 대회준비위원 sciea2019@outlook.com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11 회 대회준비위원회

주 임 Marc A. Matten (王 馬克) 중국당대사교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부주임 리샤오티 (李 孝悌) 부회장 홍콩성시대학 교수)
우치다 케이치 (内田慶市) 부회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
Fabian Schäfer (谢 佛) 일본학과주임교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후지타 타카오 (藤田高夫) 평의원 간사이대학 문학부 교수)
타오 더민 (陶德民) 평의원 간사이대학 문학부 교수)
사무국 심 국위 (沈国威) 학회사무국장 간사이대학외국어학부 교수)
Margarete Darr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비서 사무)